

기생충, 무검사 투약은 이래서 무섭다.

디스토마증을 확진하려면
우선 피내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양성
반응이 나오면 대변이나 객담검사
에서 총란을 발견하고 투약토
록 되어 있는데 무조건 독한
약만 복용한다면...



이 준 상

88올림픽까지 “기생충감염율 0%”
운동이 전개되어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달성되기까지의 한
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 모두의 투철한
사명감을 높이 사고싶다. 그러나 일선
양호선생님 및 보건담당선생님의 노력이
없었던들 불가능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어떤 사람한테서 대변을 얻을 수 있다면
무언들 못 끄집어 낼 수 있겠느냐. 이는
그만큼 대변을 수집하기가 어려움을 나
타낸 말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검사를 하지 말고 그냥 투약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얼마나 위험 천만한 발상인가! 또 현
재까지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안일한
생각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일반기생충
만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개인만 생각하고 이런 이야
기를 한다면 그런 사람은 무검사 무투
약함이 경제적으로 보다 현명하다 하겠
다. 물론 일반기생충 감염율이 아주 낮
으므로 검사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감
정에서 나온 발상으로 생각되나 기생충
약이 보약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검사도 받지않고 그
냥 투약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는가. 또 기생충약을 예방약으로 착
각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간 및 폐흡충 피내반응만 실시
하고 제약회사가 고가의 디스토마약을
팔아 양식있는 학자들의 눈살을 찌푸리
게 하고 있다. 이 발상도 검사하지 않고
투약한다는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가 디스토마증을 확진하려면 우선 피내
반응을 실시하여 양성반응이 나오면 대

변이나 객담검사에서 디스토마충란을 찾아서 충란이 발견되면 투약하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독한 약만 복용한다면 이것이 곧 약의 남용이며, 오용이라 할 수 있는지 않는다.

일전에 소아과에서 11살된 여자아이의 객담이 의뢰되어 기생충학교실에서 검사한 바, 폐흡충의 충란이 짝 깔려 있었다. 그 아이는 뇌막염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1년 가까이 입원까지 하고 여러가지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여러가지 검사를 의뢰하다가 마지막으로 피내반응검사를 실시한 바 양성반응이 나타나 객담검사를 하게 된 것이다. 물론 폐디스토마 환자인데 뇌막염으로 진단이 되어 이병원 저병원 오래동안 입원한 경우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인가. 오진을 타파자는 것이 아니다. 기초검사인 혈액이나 소변처럼 대변이나 객담검사를 한번 실시했던들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근래 폐디스토마가 발견되기 힘들니까, 아예 생각지 못하는데 기인되고 또 환자의 검사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검사를 줄인데 기인되지 않았나 생각된

다. 초기에 실시하였던들 그많은 기간동안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경제적 부담도 적었을 것을 생각하니 그아이에게 미안한 감이 든다. 또 의료인들이 조금더 신경을 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하니 부끄럽기까지 하다. 요사이 좋은 디스토마 치료약이 나와 만족한 결과를 얻어 다행이지만 좋은약이 개발되기 전에 많은 디스토마환자들이 얼마나 고민했겠느냐를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많다.

「당신 간디스토마 감염입니다. 치료약이 아직 없습니다. 집에 가서 잘 쉬세요」이 세마디만 말하면 그 좋던 몸도 간디스토마 노이로제에 걸려 몸이 시들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좋은 약의 개발로 80년대에 와서는 한시름을 덜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부작용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약에 대한 과신이다.

「민물회를 먹지 마세요」 「좋은 간디스토마 치료제가 나왔는데 실컷 민물회 먹고 치료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약은 간디스토마 예방약이니 좀 드신후 잉어회를 드세요」하는 말들을 민물회 즐기는 사람 또는 민물회 장사들이



◀기생충 검사는 한번 검사해서 음성이었다고 항상 음성인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계속적인 검사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생충이다.

떠들어 대어 멋도 모르는 대중은 그대로 믿고 같이 잉어회를 먹기도 한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가! 어떻게 기생충약이 예방약이 될 수 있으며, 한 번 나빠진 간이 좋아질 수 있겠는가 반문해 본다.

돼지고기를 육회로 또는 덜 익혀서 먹으면 갈구리충충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뇌낭미충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적다. 뇌낭미충은 간질(지랄병)을 수반하는 수가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간질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 3가지는 끝나는 것 같다. 첫째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간질하며 넘어지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는가. 둘째 직장이 끝난다. 어찌 직장에서 온전할 수 있겠는가. 남들이 흉을 보고, 업신여기는데 자기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자기 자신이 끝난다. 언제 어디서 간질이 생길지 불안과 초조속에서 생을 보내는데 생의 의욕이 있겠는가. 그러면 이와 같은 3가지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아마 인생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사태가 생기는 이유는 대변 검사를 받지 않는데 기인되는 수가 많다.

기생충감염중 일반 기생충 즉 대변검사로 찾을 수 있는 기생충감염율은 아주 많이 저하 되었으나 특수기생충은 아직도 요원하다 하겠다. 한 예로 요충을 들면, 누가 감염율이 30~40%라고 생각하겠는가. 가끔 대변검사성적에 요충은 0.001%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10

만에 1명꼴이란 말이다. 어떻게 그중에 우리아가 끼어 들었을까 하는 엄마가 있다. 요충은 항문을 나와서 산란하므로 대변검사에서는 감염자라도 충란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어쩌다 우연히 발견된 곳이 대변이지 진짜는 항문 주위에서 스카치테이프프로 충란을 발견하는 것이다. 또한 아울러 알아두어야 할 것은 기생충 검사에 있어서의 음성결과이다.

요충을 예로들면 1회검사를 실시한 바 양성율이 32%가량 되는데 3일간격으로 연속 7회 실시한 바 양성율이 70%가량으로 증가되었다는 사실이다. 한번 검사해서 음성이 되었다고 당신에게는 기생충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상의 예 모두가 무검사 투약을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생길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우리나라 1000만명에게 무검사투약으로 일반기생충약만 사용하더라도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일단 대변검사를 실시하고 투약하면 총비용이 30억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개인, 보통 지식층이라는 사람이 구차함 등을 이유로 무검사투약을 주장한다면 그사람에게는 무검사 무투약함이 더욱 경제적이고 더욱 구차함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잘되어 가는 기생충 박멸사업에 제를 뿌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국민 모두는 합심하여 약간의 구차함을 참고 견뎌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선진조국이란 기생충없는 나라를 말한다.

〈필자= 고려의대 기생충학 교수〉